

오실 자의 모형 (로마서 5:12-21)

오늘은 맥추절로 지킨다. 절기 만들 때는 책이 없었다. 글자는 있었으나 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하셨다. 절기 안에는 항상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절기의 출발은 1월 14일에 시작한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어린양의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역사로 흑암을 완전히 깬다. 니가 이 언약의 피를 너의 언약으로 잡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약속이다. 그 약속 잡고 광야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이다. 마른 땅을 건너버렸다. 곡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다.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목마른 사람 없고 요단강 갈라버렸다. 여리고성 손 안대고 무너졌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라는 뜻이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맥추절이다. 50일은 49일 다음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때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된다. 첫 이삭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첫 이삭이다. 우리 입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의 첫 이삭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첫 열매이다. 그리고 이 날 성령님이 오셨다. 49일 다음날이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을 넘어 그 다음날을 지키게끔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많은 절기들을 보면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 8일이라는 말이 많이 있다. 그 날이 오늘이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날이다. 그 다음 절기가 가을 절기이다. 가을 거둘 때에는 각종 열매들을 거둔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국 창고에 넣는다는 뜻이다. 이 세 절기를 이제 지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끔 했다. 오늘 그 중에 맥추절이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다. 헌금을 그냥 하지 말고 이 언약을 잡고 하기 바란다. 글면 응답 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메시지는 오실자의 모형이다. 맥추절의 첫 열매이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으면 사단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무너진다. 이것을 계속하면 삶과 생각이 저주에서 나오게 된다. 지속해보기 바란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저주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콘텐츠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진정한 콘텐츠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 뿐이다. 진심으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응답 다 받는다. 성경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류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답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흠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만한 응답은 분명히 다 받는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성경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설명한 것도 성경이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왜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갈라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세는 말씀을 받았으니 믿지, 나는 말씀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면 나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말해 놨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깨고 너를 저주에서 건진다고 이미 계속 말했었다. 그러면 모세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모세는 그것을 듣고 믿고 알았다. 우리는 이미 있는데 안 믿는 것이다. 안 믿으니까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는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유는 하나 뿐이다. 언약을 안해서 그렇다. 오늘부터 고치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게 완전한 답이다. 다른데에는 답이 없다 할 정도로 유일한 답이다. 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나 말고는 전부 거짓말이야, 이 말은 내가 진리야. 나 말고는 가는데마다 다 죽어, 내가 생명이야, 그 말이다. 지난 주 말씀에 미스바 운동이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했나? 언약을 회복했다. 언약을 회복하는가? 그러면 응답 받는다. 지속하면 응답이 쌓인다. 응답이 쌓이면 문제 와도 걱정 없다. 제일 현실적인 것이 경제 문제 아닌가? 그 동안에 응답을 받아서 돈이 쌓여 있다. 경제 문제 왔다. 뭐가 문제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신앙고백이 계속 쌓여 있다. 그러면 모든게 문제 안된다. 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답이나? 그냥 믿는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답이나? 전도도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에 언약 잡고 전도해서 제자가 쌓여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없는 전도자는 오늘도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 만나야 한다. 나쁜건 아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한다면 성격적이지 않다.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벌어서 먹고 사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경계가 쌓이지 않고 죽을때까지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부 다 날려버렸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쌓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언약을 누려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 걸어야 한다. 안되도록 하려고 사단이 기를 쓰고 발목잡고 늘어진다. 계속 속인다. 진짜 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쌓여 있는 인생, 이 사람이 증인이다.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너가 나 따라오면 너 인생 저주에서 내가 건져 준다. 건지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복음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온전한 어린양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다.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다. 원수의 머리가 깨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켜준다. 그 이후에 계속 대적을 막아주심으로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미스바운동이다.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이렇게 할테니 너 이런 사람 되어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이 되는 출발이 뭔가? 근본이 뭔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였다. 정답은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응답 없다. 내가 길이라는 말은 다른 길 없다는 것이다. 내가 진리라는 말은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마태복음 6:33절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으로 안 살고 응답을 달라고 한다. 내가 언약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 그걸 안하고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아도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것이다. 고치면 된다. 어떻게 고치나? 이것은 영적 문제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못 고친다. 이것이 쌓여 있어야 한다. 경제도 쌓이고 전도도 쌓이고 영적 증거도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뛰어 넘는 증인 될 수 있다.

1. 오실 자의 모형

14절에 나와 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한 자가 누구인가? 모세때 율법은 하라 하지마라.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명령이 없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사망의 왕 노릇하고 죄를 지었을 때 지옥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율절에 보면 나온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는데, 이 율법은 모세이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냐면 기준이 없었다. 그 기간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한 것이 14절이다. 그 사람들도 지옥간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오늘 21절까지는 이런 식의 설명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듣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시고 직접 읽어보시기 바란다.

오늘은 14절의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보겠다. 아담은 원죄를 일으킨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그는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죄를 보면 말이 안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아담은 그런 원죄도 지었지만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 했을 때 아담이 받았다. 인류의 저주의 원인이었으면서도 언약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믿고 구원 받은 언약이 어디서 왔냐면 아담에서 왔다. 그것은 저주의 원인이었지만 구원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그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한다. 또 그가 오실자의 모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러 왔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 약속된 그리스도야, 그것 설명하러 왔다. 많은 말씀과 기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십자가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전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아담도 이런 면에서는 생명을 건 전도자였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원죄 이전과 이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찬란했던 에덴동산이 구석기 시대가 되었다. 아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언약이 뭔지 잘 몰랐을 것이다. 대수롭게 얹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증거가 일어나? 겁이 굉장히 났을 것이다. 아마 거의 패닉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만일 아이를 낳았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했겠는가? 이 언약 절대 깨지면 안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그 때 그 일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 에덴동산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이 연구하고 만들어 낸 것이 문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언약을 말씀하신것과 아담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아담은 자기 육신으로 생명과 죽음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15을 생명으로 잡았을 것이다. 이제는 이것 아니면 죽는다. 또 다시 실수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전했다. 이미 타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 중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가인과 아벨이다.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 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아마 내 생각에 언약을 잡은것과 그것을 전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 된다면 우리도 될수 있다.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다.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그가 오실 자의 모형이 된다면 우리도 능히 될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언약과 언약을 증거하는 삶 이 바탕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면 우리도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은 종류고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해진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렸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살려도 우리도 이러면 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 된다. 가는 곳마다 저주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갔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문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하다. 복음 전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게, 누가 사람을 재앙에서 건지겠는가? 복음을 전하고 누리면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에 저주를 어떻게 꺾겠는가? 내가 누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전쟁을 붙는 것이다. 영적 전쟁.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다. 본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할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미국을 반드시 살리고 남미는 끝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능력이고 권세이고 경복이다.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

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형이다. 나는 오실 자의 모형이다. 나는 이 시대를 두고 다시 오실 그분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내 전도현장에서, 내 경제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그분의 모형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 말씀이 멀리, 그리고 마음에 안들어오면 기도해야한다. 원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 죽은 것 아니다. 모세는 귀로 들었지만 우리는 읽어서 듣는다. 어느날 말씀 하나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한다. 말씀은 살았고. 축복있기 바란다. 정복해야 한다.

## 2. 0.1%의 사람

오실 자의 모형은 0.1%의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로 만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다.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진짜로 믿는다. 이유는 한 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시대적인 복음이다. 이런 저런 문제에서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흥해 상관 없다. 광야 3일만에 다 죽는 곳에서 40년 살았다. 그것이 그 날 저녁 그 약속의 피이다.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았다. 이것 말고는 답 없다. 세상은 사단이다. 죽이기 전에는 해방이 없다. 경제 뒤에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그래야 돈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언약 잡아야 한다. 말씀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루터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어느날 성경 읽는데 들어왔다. 모세처럼 직접 들은게 아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들어왔다. 그 한 문장으로 시대를 뒤집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생겼다. 그 한 문장 말씀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 창 3:15은 모든 인간의 복음이 되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그 언약을 아담이 받았다. 당연히 오실 자의 모형이다. 짐승도 이 복음으로 산다. 복음 가진 노아 방주 안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짐승도 사는 것이다. 이것으로 세상 살린다는 것이다. 안 들어온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는 0.1%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믿고만 있는게 아니라 누리고 마음에 심어서 증인 되려는 사람, 진짜 0.1%이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대적인 0.1%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몇 명의 대표적 사람들 0.1%였다. 바울과 함께 있는 제자들, 바벨론의 제자들, 루터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직자, 영주들 다 그 시대의 0.1%였다. 우리는 이런 0.1%의 교회가 되려는 것이다. 미국을 살리고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0.1%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0.1%들이 다 그랬듯, 100년의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만일 죽어가는 미국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운동의 불씨를 살린다면 100년의 응답인 것이다. 남미는 이제 5천 종족 운동이다. 남미는 미전도 종족이 많다고 한다. 연결된 제자들과 함께 거거서 성경적 전도를 일으킬 것이다. 인생의 답은 한가지이다. 그런데 두가지로 표현하면 이해가 더 쉽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인생의 답이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실질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 선교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 해결할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두 개의 중간에 이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얻는 비결이 기도이다.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기 바란다.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바란다. 하나님의 큰 증거 있기 바란다.